

【국어생활 논단】

어휘 생태계의 역학적 현상

홍사만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I.

통시적이거나 공시적이거나 언어의 생태계는 마치 자연계의 생존 원리와 같은 맥락으로 평형과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언어 연구에 있어 생태학적 접근이 가능한 것은 언어가 환경 의존적인 존재이며, 그 내부에는 어떤 역학적인 힘이 작용하여 이에 따른 생멸과 조화와 균형을 형성하는 질서가 발견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언어에서 일어나는 각종 현상들은 동식물의 생태적 보편 원리와 보조를 같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어휘 면에서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 어휘사적으로 보면, 단어의 군집들은 동일한 어형끼리 경쟁 관계를 갖게 되고, 유의적 의미를 가진 단어끼리도 경쟁을 벌인다. 이를 흔히 동음 경쟁과 유의 경쟁, 또는 어형 충돌과 의미 충돌이라 일컫는다. 어휘계에 있어서도 동물의 세계처럼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냉엄한 힘의 논리가 존재한다. 동음 경쟁이나 유의 경쟁에서 강자가 살아 남고, 약자가 도태되어 퇴화하는 것은 자연의 철리이다. 어휘들의 생멸은 이처럼 숙명적인 충돌과 경쟁의 결과 얻어지는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한편, 어휘 생태계에는 항상 죽고 사는 투쟁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간의 경쟁에서 타협점을 마련하여 쌍방이 공존하기 위한 길을 모색하는 노력도 있다. 그들은 서로 경쟁의 원인을 찾아내어 자기를 수정함으로써, 피차간의 경쟁을 회피하는 공생의 원리를 터득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어휘는 보수적인 힘이 있어 어떤 변화를 꺼리는가 하면, 개혁적인 성향이 있어 끊임없이 자기 변화를 추구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수구와 개혁간의 알력과 갈등을 겪으며 그 속에서 조화를 이루어 가는 것이다. 언어의 제 부문 중 가장 보수적인 것이 문법 부문이고, 가장 개신적인 것이 어휘 부문이다. 어휘는 문화적 맥락에 따른 변개와 생멸의 빈도가 높다. 때로는 부족한 것을 외국어로부터 차용하기도 하고, 어휘 상호 간의 간섭과 감염에 의해 형태와 의미를 바꾸기도 한다.

어휘의 의미에 있어서도 생태적, 역학적 현상은 존재한다. 단어어가 다의화하려는가 하면, 다의어는 다시 단의화하려는 경향을 보여준다. 단어의 다의화 현상은 한정된 어형으로 만상을 표현하기 위해 부득이한 것이지만, 과도한 다의화로 기능 부담량에 과부하가 걸리는 다의어는 자신의 의미 중 일부를 다른 유의적인 단어에 넘겨주고 다시 단의화하려는 경향을 통시적으로 보게 된다. 이제 필자가 어휘 의미에 대해 통시적으로 관찰한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다.

15세기 어형 ‘어리다’의 의미 변화는 지금까지 “愚”“幼”의 변화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중세·근대 국어의 문헌을 면밀히 살펴보면 “愚”“愚”·“幼”“幼”로 의미가 바뀐 것이다. 당시 ‘어리다’는 “愚(어리석다)”의 의미로부터 “幼(어리다)”의 의미를 파생시켜 양의화(兩意化)했다가, 그 후 “愚”의 의미를 버리고 “幼”의 의미만으로 단의화한 것이다. 단의화의 과정에서 자신의 어형으로부터 분화된 ‘어리석다’에 “愚”의 의미를 전담시켰다. 또한 ‘점다’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15세기의 ‘점다’는 현대 국어의 ‘어리다(幼)’와 ‘젊다(若)’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근대·현대 국어에 오면서 “幼”·“若”>“若”의 의미 변화를 겪었다. 따라서 중세 국어의 ‘점다’는 현대 국어의 ‘젊다’보다 연령층의 외연이 넓어 ‘어리다’의 영역까지를 포함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던 것이 양의

의 하나인 “幼”의 의미 때문에 ‘어리다’와 유의 경쟁을 벌인 결과, ‘젊다’는 “幼”의 의미를 ‘어리다’에 넘겨주고 “若”의 의미 하나만으로 단의화한 것이다.

‘스랑하다’와 ‘싱각하다’의 유의 관계에서도 동일한 현상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스랑하다’의 의미 변화는 “思”>“愛”로 주지되고 있지만, 엄밀하게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 “思”·“愛”>“愛”로 변한 것으로, 이것도 양의의 단의화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15세기에 “思”와 “愛”의 양의를 지닌 ‘스랑하다’는 당시 사용빈도 면에서 비교될 수 없었던 ‘싱각하다’와 “思”의 의미로 유의 경쟁을 벌였다. 그 결과, 양의를 가진 ‘스랑하다’ 쪽이 “思”의 의미를 포기하고 “愛” 하나만으로 단의화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양의를 가진 단어에서, 그 의미 중 하나가 유의적인 다른 단어와 유의 경쟁을 벌이게 되면 양의를 가진 쪽이 불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양의의 기능 부담량의 경감이라는 욕구와 함께, 한편으로는 단의 쪽의 퇴화로 인한 한쪽의 사어화를 막는 균형의 원리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예는 명사인 ‘빈’과 ‘값’에서도 볼 수 있다. ‘빈’의 의미 변화도 단순히 “價”>“價”로 기술하고 있지만, 실상은 “價”·“價”>“價”로 양의의 단의화를 경험한 것이다. 15세기 국어에서 ‘빈’은 양의인 “價”와 “價”를 가졌다. 그런데 당시 “價”의 의미를 가진 ‘값’이 존재하여 이와 유의 경쟁은 필연적인 것이었다. 유의 경쟁 결과, 단의인 ‘값’이 승리함으로써 ‘빈’은 양의 중 “價”의 의미를 ‘값’에 넘겨주고 “價”의 의미만으로 단의화한 것이다.

이러한 어휘 상호 간의 역학적 경쟁 원리는 어떤 단어가 스스로 유연성을 띠는 의미를 파생시켜 다의화하려는 의미 확장의 욕구와, 다의가 다시 단의화하려는 기능부담 경감의 욕구가 모순 없이 공존하는 결과를 낳는다. 다의의 단의화 과정에는 반드시 타 경쟁어와의 유의 경쟁을 치르는 것이 철칙이며, 그런 과정의 소산물이 바로 단의화이다. 다의어의 기능 부담 경감의 욕구는 단의화뿐만 아니라, 다의 중의 어떤 파생 의미가 중심 의미로부터 유연성이 소멸되는 경우, 그것이 동음어화하여 분가하는 현상과도 통한다.

지금까지 어휘의 생태와 관련하여 ‘경쟁’, ‘포기’, ‘승리’, ‘욕구’, ‘공존’, ‘경

힘' 이란 단어를 쓴 것은 어휘가 일종의 유기체로서 생태적 현상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어휘의 생태적 추이는 향후 생태어휘론의 정립을 가능케 할 것이라 믿어진다.

II.

우리의 일상 발화 중에서 가장 많이 출현하는 조사 '-은/는'과 '-이/가'의 상호 관계를 살펴보면 상반적 기능의 조화가 나타난다. 지금까지 여러 각도에서 양자의 이질적인 표현 기능이 탐색되었지만, 그 중에서도 전자가 소위 구 정보 표지(old information marker)로, 후자가 신정보 표지(new information marker)로 질서 있게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경이롭다.

- (1) a. 철수는 무엇을 하고 있니?
 b. 철수는 공부하고 있지.
 c. ∅ 공부하고 있지.
- (2) a. 누가 공부를 하고 있니?
 b. 철수가 공부하고 있지.
 c. 철수야.

(1)a의 원인문에 나타난 '철수는'은 그 응답문인 b에서도 반드시 '철수는'으로 대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2)a의 '누가'의 경우도 응답문 b에서 「철수가」로 대답해야 하는 엄격한 준별성을 보여준다. (1)b에서 '-는'의 피접어는 기지의 사실인 구정보를 나타내고, (2)b에서 '-가'의 피접어는 미지의 사실인 신정보를 나타낸다. 따라서 (1)b에서 구정보인 '철수는'은 정보전달력(communicative dynamism)이 약하여 그것이 초점(focus)이 될 수 없고, 그에 따라 c처럼 생략되기도 한다. 이에 반해 (2)b에서 신정보인 '철수가'는

문의 초점으로 생략될 수 없다. 오히려 c처럼 기지의 요소인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이 생략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상반적 기능은 어디에서 왔으며, 무엇이 그렇게 규정하여 양자의 쓰임에 적용시킨 것인가? 이는 말을 사용하는 언중도 아니요, 국어학자도 아닐 것이다. 결국 그들끼리의 역학 관계에 의해 자생적으로 역할 분담이 되었을 것이다. 이들의 상반적인 역할 분담은 일말의 중복이나 예외도 없이 상호 배타적이고 상보적인 관계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우리 생활 주변에서 자주 구사되는 한자어 접미사 ‘-的’의 경우를 보아도 또한 그렇다. 명사 어기에 ‘-的’이 붙어 파생어를 조성하는 경우는, 대체로 동일 어기에 형용사 파생접미사 ‘-답-’, ‘-롭-’, ‘-되-’, ‘-스럽-’ 등이 붙을 수 있는 경우를 피하고 있다. 예컨대 ‘정답다’가 있으므로 *情的이란 파생이 저지되고, ‘향기롭다’가 있으므로 *香氣的이 저지되며, ‘복되다’가 있으므로 *福的이 불가능하다. 또한 ‘사랑스럽다’가 있으므로 *사랑的의 파생이 형성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반해 ‘積極的’이 조어될 수 있는 것은 적극(*스럽다, *롭다, *되다, *답다)가 되지 않기 때문이고, ‘一般的’도 일반(*스럽다, *롭다, *되다, *답다)가 되지 않기 때문이며, ‘生産的’은 생산(*스럽다, *롭다, *되다, *답다)가 되지 않는 것과 유관하다. 물론 이러한 원리는 연역적으로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통해 귀납적으로 추론되는 것에 지나지 않지만, 어쨌든 어휘 간에는 상호 역학적 관계를 통해 철저하게 견인하고 배척하여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보조동사 ‘~대다’와 ‘~버리다’의 대치적 의미 기능에 있어서도 이러한 역학적 관계를 볼 수 있다. 양자는 공통적으로 “종결”의 의미 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지향성이 상반된다.

- (3) a. 사업에 성공해 {내다, *버리다}. / 실패해 {*내다, 버리다}.
 b. 병마를 이겨 {내다, *버리다}. / 병마에 져 {*내다, 버리다}.
 c. 입학시험에 합격해 {내다, *버리다}. / 떨어져 {*내다, 버리다}.

d. 시험에서 승리해 {내다, *버리다}. / 패배해 {*내다, 버리다}.

‘~내다’는 화자의 기대가 +지향적이고, ‘~버리다’는 -지향적이다. 그러한 기대가 +쪽으로 성취되었을 때는 ‘~내다’, -쪽으로 끝났을 때는 ‘~버리다’를 취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상관적 대립성도 어휘 사이의 역학 작용을 통해 자생적으로 형성된 것이라 여겨진다. 언어 사용자인 언중이 그렇게 유도하거나 규정하여 쓰도록 조장한 것이 결코 아니다.

이로써 보면 언어 연구란 이미 언어 자체 속에서 형성된 원리를 귀납적으로 찾아내고 파악하는 것일 뿐, 어떠한 연역적인 대전제를 제시하고 그것을 논증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귀납적으로 찾아낸 규칙이란 결코 사람이 인위적으로 제정하여 언어에 적용시킨 것이 아니라, 언어 속의 역학적인 힘에 의해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원리일 것이다. 언어학자들은 이러한 규칙을 찾아내고, 구명하고, 해석하여 이론 체계를 수립할 뿐이다.

III.

어휘 생태계의 기능의 다양화는 그것이 어떤 질서 체계 속에서 상호 작용에 의해 정립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때때로 말을 사용하는 언중의 무모한 구사 행태는 이러한 질서를 파괴하는 경우가 있다. 관용이라고 하는 언중의 폭력이 그것이다.

국어의 격표지 가운데 가장 역동적인 것으로 대격조사 ‘-를/-을’을 들 수 있다. 대격조사 ‘-를/-을’의 원형적인 기능은 어디까지나 타동사의 대상에 대한 대격(목적격)을 표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 국어에서 ‘-를/-을’의 다기한 기능 확장은 실로 넓은 영역에 분포되어 있다. 흔히 우리는 일상 생활구어에서 다음과 같은 문례들을 만난다.

(4) a. 극장을 간다/ 길을 걷는다/ 하늘을 난다.

- b. 물을 포도주를 만든다/ 돈을 철수를 준다/ 그를 친구를 삼는다.
- c. 빵을 두 개를 먹었다/ 길을 십 리를 걸었다.
- d. 도무지 먹지를 않는다/ 좀처럼 보려고를 하지 않는다/ 그냥 들어를 보아라.
- e. 빨리를 달린다/ 높이를 뿜다/ 잘을 모른다.

(4)a-e에 쓰인 조사 '-를/-을'은 정상적인 분포가 아니다. a는 자동사의 동작이 행해지는 장소를 표시하는 예이고, b는 이른바 이중목적어문으로 '-를/-을'이 조격조사 '-로', 여격조사 '-에게', 자격격조사 '-로'를 대행하여 쓰인 예이다. c는 목적어의 동격이 되는 수량어에 '-를'이 첨가된 것이고, d와 e는 용언의 어미와 부사 아래에 직접 붙어 강조적 첨의를 나타내는 경우이다. 이러한 예들은 모두 '-를/-을'의 피접어가 동사의 목적어가 되지 못하는 공통성을 띠고 있다. 특히 d와 e의 예는 마치 (5)와 같은 특수조사의 분포를 연상케 한다.

- (5) a. 먹지{는, 도, 만, ...} 않는다.
- b. 보려고{는, 도, 만, ...} 하지 않는다.
- c. 들어{는, 도, 만, ...} 보아라.
- d. 빨리{는, 도, 만, ...} 달린다.
- e. 높이{는, 도, 만, ...} 뿜다.
- f. 잘{은, 도, 이야, ...} 모른다.

결국 대격표지의 이와 같은 변용은 당초 대격조사로서의 기능 영역을 벗어나 강조적 첨사, 양태조사, 형식요소, 가객어 표지, 특수조사라는 여러 가지의 문법 범주의 영역으로 치닫고 있다. 이들을 대격(목적격)조사라고 부르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한편 이른바 습관적 첨사가 구어의 여러 곳에서 산견된다. 물론 이들은

어떤 상황을 제시하는 화용적 역할을 동반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들의 사용도 수용하기 어려운 과도한 기능 확장의 예가 아닌가 싶다. 예컨대,

- (6) a. 애들아, 집에들 빨리 가거라들.
 b. 아버지께서는예 아직 회사에서예 오지 않으셨는데예.
 c. 소인은요 아무런 잘못도요 없습니다요.
 d. 이 세탁기는말이죠 금년에말이죠 새로 나온 제품인데말이죠.

에 쓰인 ‘들’, ‘예’, ‘요’, ‘말이죠’ 등은 화자의 화행 버릇에 의해 첨가된 상황적 첨사(situational particles)이다. 이들은 각각 a. 청자가 복수인 상황, b. 청자를 존칭하려는 화자의 의도 상황, c. 화자 자신을 낮추려는 상황, d. 청자의 공감을 환기하는 상황 등을 나타내고 있지만, 모두 언중의 관용도가 지나친 발화 형태임에는 틀림없다.

이처럼 언어가 관용이라는 명분 아래 자의적으로 확산되거나, 그로 인해 오용이 고착화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언어의 무분별한 확장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가? 물론 문법이라는 규범이 이를 규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언어가 흘러가는 물줄기는 반드시 문법적인 정도를 지키고 있는 게 아니다. 언중의 관용에 이끌려 지향없는 질주를 자행하기도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인간이 언어 생태계의 혜택으로 언어 생활을 하는 것이나, 자연 생태계의 혜택으로 의식주 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동일 맥락으로 파악된다.

언어의 유희와 왜곡은 언어 생태계를 오염시키고 급기야 파손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언어 생태계는 필연의 논리가 서식하는 곳으로, 우연과 오류의 난무는 불식되어야 한다. 인간의 손에 의해 자연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 것과 같이, 언어를 구사하는 언중의 입에 의해 언어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러한 파괴는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불행으로 돌아올 것이다.

우리는 공해와 오염 없는 깨끗한 자연 환경 속에서 살기를 소망하듯이, 왜곡 없고 정갈한 언어 환경 속에서 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언어 생태계의 질서와 조화를 잘 보존하도록 도와주는 것은 언중의 몫이다.

참 고 문 헌

- 김광해(1993). 『국어어휘론 개설』. 집문당.
- 김중택(1992). 『국어어휘론』. 탑출판사.
- 沈在箕(1982). 『國語語彙論』. 集文堂.
- 劉昌惇(1964). 『李朝國語史研究』. 宣明文化社.
- _____ (1971). 『語彙史研究』. 宣明文化社.
- 李光鎬(1995). 『類意語 通時論』. 이회.
- 李基文(1991). 『國語語彙史研究』. 東亞出版社.
- 李賢熙(1994). 『中世國語 構文研究』. 新丘文化社.
- 임홍빈(편저)(1993). 『뉴앙스 풀이를 곁한 우리말 사전』. 아카데미 하우스.
- 장석진(1985). 『화용론 연구』. 탑출판사.
- 全在昊(1987). 『國語語彙史研究』. 慶北大 出版部.
- 조항범(1984). 「國語 類意語의 通時的 考察, -명사, 동사를 중심으로-」. 『國語研究』58. 國語研究會.
- 千時權·金宗澤(1971). 『國語意味論』. 螢雪出版社.
- 최석규(역)(1963). 『날말의 생태』.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 한글학회(편)(1995). 『우리말큰사전 4』. 어문각.
- 洪思滿(1994). 『國語意味論研究』. 螢雪出版社.
- _____ (1996). 「중세·근대어 「빔」과 「값」의 의미」. 『어문론총』30. 경북어문학회.
- _____ (1998). 「중세·근대어 어휘의미 연구(5) -‘스랑하다’, ‘싱각하다’, ‘너지다’의 의미-」. 『어문론총』32. 경북어문학회.
- _____ (2000). 「중세·근대어 「어리다」와 「점다」의 의미분석」. 『언어과학연구』

17. 언어과학회.

- 홍윤표 외(편)(1995). 『17세기 국어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태학사.
- 有馬道子(1995). 『ことばの生命』. 勁草書房.
- 池上二良(編)(1980). 「言語の變化」, 『講座言語』第2卷. 大修館.
- 遠藤敏雄(1974). 『環境と言葉』, -環境言語學入門-. 學書房出版.
- 大野晉(1987). 『文法と語彙』. 岩波書店.
- 筧壽雄(監譯)(1998). 『ことばの進化論』. 勁草書房.
- 國廣哲彌 外(編)(1986). 『ことばの意味 3』. 平凡社.
- 廣松涉(1979). 『もの・こと・ことば』. 勁草書房.
- Cruse, D.A.(1982). *Lexical Semantics*. Cambridge Univ. Press.
- Lyons, J.(1977). *Semantics*. Vol 1,2: Cambridge Univ. Press.